



●「우리나라 圖書館學教育에 관한 세미나」主題 發表論文

우리나라 專門司書職의 需要 長期展望, 1979~1991.

韓 相 完
國際經濟研究院 責任研究員

I. 序

우리나라 圖書館學 教育 20年은 그 質과 量의 양면이 실제로 棼棼히 發展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開發途上國이라는 통칭을 탈피하여 新興工業國(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1]으로의 위치를 확고히 한 1970년대의 지속적인 高度 經濟成長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世界속의 韓國으로 모든 면에서 후진성을 극복하고 있고, 도서관학 교육도 대체로 이러한 發展의 대열에 발맞춰 온 것이 아닌가 한다.

1957년에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 학사과정, 석사과정, 그리고 1년간 특수과정의 설립이 근대적 도서관학 교육의 효시를 이룬 이래, 1979년 2월 현재 9개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2], 5개 대학에는 정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5개 專門大學에 2년제 도서관학과가 설립되어 있음을 보아, 發展하는 社會의 人力 需給에 도서관학 教育界가 부응해 온 것은 事實로서 입증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관에서의 專門司書職 養成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계획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散發의이며 우연에 의존한 인상이 짙은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文教當局이나 圖書館學界 및 一線 圖書館界에서 專門司書職 輩出의 적정선, 교육수준 및 교육기관의 지역별 안배에 대한 長·短期 계획이나 政策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20여년간 도서관학 교육이 실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論考에서는 現 時點에서 우리나라의 司書職 教育의 現況과 문제점을 分析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하여 司書職 教育의 水準과 배출 人員의 적정선에 대한 推定과, 바람직한 교육기관의 지역별 配置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적 要因을 前提하였을 경우,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完了되는 1991년까지의 司書職 需要와 供給에 대한 長期展望을 예측하려 한다.

그러므로써 전문사서직의 수요공급에 대한 政策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도서관계와 정부 당국에 미진 하나마 이분야에 대한 기초 정책 수립자료를 제공하여 보려는 것이다.

II. 專門司書職 教育現況

1. 司書養成 教育機關과 專門司書 輩出 現況

현재 全國의 司書 養成기관은 그 성격상 3개의 범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9개의 正規大學의 도서관학과에서 正司書を 양성하는 정규교육기관과,

둘째의 범주는 2년제 專門大學에서 準司書を 길러내는 것인데, 1979년 2월 현재 5개의 전문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있고[3],

세째는 1년과정과 단기강습에 의한 정·준사서의 양성제도인데, 성균관대학교 司書教育院과 국립중앙도서관 단기의 강습코스가 이 범주에 속한다.

물론 정규대학 중에는 大學院에 圖書館學科를 開設하여 도서관학 碩士과정을 이수시키는 5개 대학이 있고, [4] 2개 대학에서는 教育大學院에서 司書を 길러내고 있는데[5] 이는 편의상 첫째 범주에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주별 교육기관 현황은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9개 대학에 학생모집 정원이 330명이며, 2개의 1년이하 단기과정에서는 180명을 모집하고 있어 정사서 모집 총 定員은 510명이다[6].

준사서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은 5개 기관으로서 정원은 640명이나 된다. 여기에 短期課程에서 모집하는 280명을 더하면 준사서 모집정원은 920명이 되며, 정사서와 준사서 모집정원의 比率는 35.7% 대 64.3%이다.

한편 이제까지 輩出된 전문직 數는 1946년부터 1976년 2월까지 정·준사서를 합하여 5,837명이며, 배출된

〈표 1〉 전문사서직 교육기관의 입학정원 및 배출현황 (1979. 2. 현재)

교육수준	설립년도	소재지	교육기관명	입학정원	졸업자수			비고
					정사서	준사서	계	
대학	1957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30	525		525	제열별모집 1977년 9월 학기부터 모집 중지 제열별모집 박사학위 수여자 3명포함 제열별모집
	1957		연세대학원 "		12		12	
	1971		연세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28		28	
	1959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50	716		716	
	1959		이대대학원 "		21		21	
	1973		이대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27		27	
	1963	"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30	264		264	
	1973		중대대학원 "		3		3	
	1964	"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30	310		310	
	1971		성대대학원 "		20		20	
	1974	대구	경북대학교 도서관학과	40	25		25	
	1978		경북대대학원 "					
	1976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30				
	1977	대구	효성여자대학 도서관학과	40				
1979	부산	부산여자대학 도서관학과	40					
1979	청주	청주대학 도서관학과	40					
소계			9	330	1,951		1,951	대학원 입학정원은 제외
전문대학	1970	부산	부산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	120		439	439	주야 " " " " " " 1979학년도부터 釜山産業大學으로 개편, 폐과
	1972	서울	송의여자 " "	160		483	483	
	1974	대구	계명실업전문대학 "	160		290	290	
	1974	"	한국사회사업대학병설 "	120		214	214	
	1975	부산	한성여자조급대학 "			78	78	
	1979	"	설봉여자실업전문대학 "	80				
소계			6	640		1,504	1,504	
단기양성기관	1946	서울	국립도서관학교		77		77	1950년 6.25동란이후 자연폐교 1971년 2월 제11회 졸업을 끝으로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으로 승격개편 1963년 수료를 끝으로 모집 중지 " " " " " " 자격증수여없이 수료하므로 학계에서 제외 필요시에 개설
	1957	"	연대한국도서관학당고급사서과정		219		219	
			" " 사서교사과정		132		132	
	1965	"	성대사서교육원 정사서과정	120	357		357	
			" 사서교사과정	60				
			" 준사서과정	120			310	
		" 문헌관리과정	(120)			(918)		
1967	"	국립중앙도서관 정사서강습		147		147		
		" 준사서강습	160		1,140	1,140		
소계			4	460	932	1,450		
총계			19	1,430*	2,883	2,954	5,837	한국도서관협회의 정·준사서 강습수료자 제외

* 各大學院定員은 포함되지 않았음.

정·준사서의 비율은 49%대 51%였음이 밝혀졌다.

一般的으로 정사서와 준사서 양성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비율이 적당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바람직한 代案은 정·준사서 배출비율이 7:3내지는 6:4정도가 알맞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정·준사서의 양성기관을 男女共學과 女性教育기관으로 대별하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남녀공학은 9개기관으로 모집정원은 910명(정사서 350명, 준사서 560명)으로 入學總定員의 63.6%이

며, 女性교육기관은 7개기관에 모집정원이 520명(정사서 160명, 준사서 360명)으로서 전체의 36.4%이다,

남녀공학교육기관에서의 男女 구성비율이 약 50%정도인점을 감안하면, 정·준사서 총 모집정원의 남녀 비율은 33%대 67%로 추정할 수 있다.

司書職에서의 女性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男子보다 다소 많은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때,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전문사서직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견

〈표 2〉 정·준사서의 남녀별 입학정원

남녀교육별	교육기관명	입학정원			비율(%)	비고
		정사서	준사서	계		
남녀공학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30		30		
	중앙 " "	30		30		
	성균관 " "	30		30		
	경북 " "	40		40		
	청주대학 "	40		40		
	계명실업전문대학 도서관과		160	160		
	한국사회사업대학 병설전문대학 도서관과		120	120		
	성균관대학교 사서교육원					
	국립중앙도서관 단기 강습코스	180	120	300		
소 계	9	350	560	910	63.6	
여성교육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50		50		
	숙명 " "	30		30		
	호성여자대학 "	40		40		
	부산여자대학 "	40		40		
	부산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		120	120		
	숭의여자 " "		160	160		
	실봉여자 " "		80	80		
소 계	7	160	360	520	36.4	
총 계	16	510	920	1,430	100	
비율(%)		35.7	64.3	100		

〈표 3〉 지역별 사서직 교육기관과 입학정원

지역별	교육수준	교육기관수	모집정원	총정원대비(%)	비고
서울·경기	대학	5	170	11.88	
	전문대	1	160	11.18	주·야간 사서교육원 야간, 국립 단기
	단기코스	2	460	32.16	
소 계		8	790	55.22	
충북	대학	1	40	2.79	
소 계		1	40	2.79	
경북	대학	2	80	5.59	주·야간
	전문대	2	280	19.58	
소 계		4	360	25.17	
부산·경남	대학	1	40	2.79	
	전문대	2	200	13.98	
소 계		3	240	16.77	
계	대학 9 전문대 5 단기코스 2	16	1,430	100.0	

지에서 볼 때 다소 男子 전문직의 배출이 많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准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이 男女의 비율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남

녀공학을 실시하는 대학이 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출되는 준사서의 약 70%인 640여명이 女性일 것이므로, 일반적인 도서관 운영상 이들의 흡수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 4> 전국도서관 현황 및 직원현황*

지 역 별	도 서 관 수	비 율(%)	직 원 수	비 율(%)	비 고
서울·경기	137	40.29	2,123	63.85	
강원	17	5	58	1.74	
충북	13	3.82	60	1.80	
충남	24	7.06	124	3.73	
전북	18	5.29	91	2.74	
전남	23	6.76	164	4.93	
경북	36	10.59	416	12.51	
부산·경남	65	19.18	263	7.91	
제주	7	2.06	26	0.78	
계	340	100.0	3,325	100.0	

* 학교도서관통계는 제외하였음

2. 司書職의 地域別 교육기관과 배출분포

우리나라의 司書職교육은 1974년 대구에 경북대학교 도서관학과와 두 전문학교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서울에 편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여서 1979년 2월 현재 사서양성 교육기관은 서울에 8개기관이 있으며, 학생모집 정원도 정사서가 350명, 준사서가 440명이나 된다. 정·준사서를 합친 서울·경기지방의 입학정원은 440명으로 전국 정·준사서 입학 총 정원 1,430명의 5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사서양성 교육기관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정·준사서를 양성할 교육기관이 한 기관도 없는 지방이 강원, 충남, 전남북 제주도의 5개지역이나 되어, 사서 양성 교육기관이 서울과 대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북지방의 정·준사서 모집총수는 360명(정사서 80명, 준사서 280명)으로 전국 입학 총정원의 25.2%나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지방에 설치된 도서관 수가 36관에 불과하며 [7] 이는 전국도서관총수에 대하여 점유율이 10.6%에 불과한 상황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지방을 위한 司書양성의 적정선보다 과대한 입학정원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서 양성 교육기관을 증설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지역별 배치를 고려한 후에 증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서양성 교육기관이 없는 5개지방에 모두 정규대학 수준의 학과를 설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문교부가 마련한바 있는 장기교육발전계획에 의거한 [8] 全國 四大廣域 高等教育圈 中 정규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전라권(전라남북도)에는 필히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서의 學力別 就業現況과 水準

전문사서직 需要의 長期展望을 하기에 앞서 현재 각

種 도서관에 취업하고 있는 司書職 취업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全國의 각종 도서관을 총망라하여 조사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으나, 이는 별도의 기획아래 수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믿으며, 여기서는 대학도서관 6, 專門도서관 6, 공공도서관 6, 국회도서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20개 도서관을 [9] 대상으로 하여 표본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3.1 司書資格證 所持別 現況

20개 도서관을 조사해본 결과 사서 자격증 소지별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즉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과 비소지자의 비율은 20기관 총 직원수 759명중에 正司書 자격증 소지자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7명으로 23.3%이며, 準司書 자격증을 所持한 직원은 214명으로 전체의 28.2%, 그리고 자격증이 없는 직원은 386명으로 전체의 48.5%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 여부로 大別한 직원 구성비율은 유자격자 391명으로 전체의 51.5%였다.

3.2 館種別 司書資格證 所持現況

관종별로 細分한 分析結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정사서 177명 중 대학도서관에 배치된 정사서는 68명으로 38.4%, 전문(특수)도서관에는 31명으로 17.5%였고, 공공도서관은 29명으로 16.4%였다.

<표 5> 사서자격증 소지별 현황

자 격 별	직 원 수	비율(%)	비 고
정 사 서	177	23.3	
준 사 서	214	28.2	
소 계	391	51.5	
자격증비소지자	368	48.5	
소 계	368	48.5	
계	759	100.0	

〈표 6〉 관종별 사서자격증 소지현황

자 격 구 분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	계	총원대비(%)
정 사 서 정사서총원對比(%)	68 38.4	31 17.5	29 16.4	28 15.8	21 11.9	177 100	23.3
준 사 서 준사서총원對比(%)	51 23.8	7 3.3	116 54.2	15 7.0	25 11.7	214 100	28.2
자 격 증 비 소 지 자 비소지자총원對比(%)	45 12.2	33 9.0	131 35.6	154 41.8	5 1.4	368 100	48.5
총 원 대 비 총원對比(%)	164 21.6	71 9.4	276 36.4	197 26.0	51 6.7	759 100	100.0

〈표 7〉 관종별 전체직원의 사서자격증 소지 비율

관 종 별 자 격 구 분	정 사 서	준 사 서	자격증비소지자	계
대 학 대학총원 대비(%)	68 41.5	51 31.1	45 27.4	164 100
전 문 도 서 관 전문도서관총원 대비(%)	31 43.7	7 9.9	33 46.5	71 100
공 공 도 서 관 공공도서관총원 대비(%)	29 10.5	116 42.0	131 47.5	276 100
국 회 도 서 관 국회도서관총원 대비(%)	28 14.2	15 7.6	154 78.2*	197 100
국 립 중 앙 국립중앙총원 대비(%)	21 41.2	25 49.0	5 9.8	51 100
총 원 대 비	177 23.3	214 28.2	368 48.5	759 100

* 국회도서관의 통계에서 자격증 비소지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8.2%나 되는 것은 국회도서관內의 입법조사국직원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임.

〈표 8〉 협직 전문사서의 교육수준별 現況

학 력 별 자 격 별	대 학 원		대 학		전 문 대	대 학 부 설 특 수			국 립 중 앙			계	비 고
	圖科*	他科	圖科	他科		大學院	大	高	大學院	大	高		
정 사 서 정사서총원對比(%)	21 11.9	8 4.5	72 40.7	6 3.9	2 1.1	3 1.7	33 18.6	1 0.6	5 2.8	26 14.7	177 100		
소 계	29(16.4%)		78(44.6%)		2(1.1%)	37(20.9%)			31(17.5%)				
준 사 서 준사서총원對比(%)				6 2.8	43 20.1		4 1.9	16 7.5	2 0.9	9 4.2	134 62.6	214 100	
소 계			6(2.8%)		43(20.1%)	20(9.4%)			145(67.7%)				
총 원 대 비 총원對比(%)	29 7.4		84 21.5		45 11.5		57 14.6		176 45.0		391 100		

* 정규대학원 도서관학과,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수료 및 도서관학과 출신으로 타 대학원 수료자 포함.

다음은 각도를 달리하여 이들 관종별 전체직원의 사서자격증 소지에 대한 비율은 표 7과 같이 분석되었는바, 정사서를 가장 많은 비율로 배치하고 있는 館種은 專門圖書館으로 전문도서관 전직원 71명중 31명이었으며, 구성비는 43.7%에 이르렀다. 이와는 정반대로

공공도서관의 正司書 배치 비율은 전직원 수 276명 중 29명을 채용하고 있을 뿐으로 그 구성비율은 10.5%에 불과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준사서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116명으로 42.0%이며, 자격증 비소유자의 비율도 가장 높은 131명이나 차지한

47.5%에 이르렀다.

국회도서관은 자격증 비소유자의 비율이 78.2%나 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도서관내의 입법조사국 직원들의 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3.3. 現職司書의 教育 水準別 現況

현직 사서 391명이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하였는가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정사서로서 정규대학원 혹은 타 대학원을 수료한 총 인원은 29명으로 총 정사서 177명의 16.4%였으며, 도서관학과나 타 학과를 마친 이로서 정사서 자격을 가진 직원은 78명으로 전체의 44.6%로 정사서 배치의 大宗을 이루고 있었다.

대학 부설 특수과정을 수료한 정사서는 37명으로 20.9%,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단기 강습을 마친 직원은 31명으로 17.5%로 분석되었다.

이를 다시 정규교육을 받은 직원과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직원과의 비율 살펴보면, 대학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은 정사서는 107명으로 60.5%를 차지하였으며, 비정규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정사서는 68명으로 전체의 38.4%로 나타났다.

準司書의 경우는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비율이 65명인 77.1%나 되었고, 준사서를 양성하는 專門大 출신은 아직 그 역사가 일천한 탓도 있겠지만 43명으

로 20.1%에 불과한 상태였다. 그리고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절대 다수의 준사서는 학력이 고등학교졸업에 머물고 있는 점도 주목할 일이며[10]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단기양성코스 출신이 두드러진 것이었다.

이러한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첫째, 정사서를 양성하는데 있어 대학이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나, 대학 부설 단기 교육기관 출신이 20.9%를 차지한 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비중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한다.

두번째는 준사서의 양성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7.7%나 되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고 사려되는 바, 이들 준사서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이들이 단기간의 강습을 통해 量産된다는 것은 사서직의 專門性을 확립하려는 圖書館學界 및 圖書館界의 끊임없는 노력에 역행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단기강습을 마치고 현직에 진출한 정·준사서가 176명인데, 그 중 고교졸업자로서 정·준사서 자격증을 얻은 자는 160명으로 91%나 차지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이

<표 9> 영국 전문사서직의 양성기관과 정원

(1974/75 학년도 기준)

수 준 별 교육기관명	2년 제 과 정	학사학위수여	학 사 학 위 이 후 수료코스	MA	MSC	계
Aberdeen	36		23			59
Aberystwyth, CLW	34	49	168			251
Belfast	2		37			39
Birmingham	62	24	29			115
Brighton	39					39
Leeds		42	34			76
Liverpool		25	38			63
London						
City University					24	24
Ealing	96		61			157
PNL	65	12	103			180
UCL			49			49
Lough borough*	61	27	39			127
Manchester	47	21	34			102
Newcastle	40	20	32			92
Sheffield				41	18	59
Strathclyde		19	37			56
계	482	239	684	41	42	1,488
비	율(%)					
		32.39	16.06	45.97	5.58	100.0

* University와 College of Technology를 포함한 것임.

자료 : Saunders, W.L. ed, *British Librarianship Today*. London, L.A., 1976. p. 348.

<표 10> 韓國 英國과의 전문사서직 입학정원 비교

교육 수준	한 국	비율(%)	영 국	비율(%)
단 기 과 정	280*	19.18		
2 년 제 과 정	640	43.84	482	32.39
학 부 과 정	330	22.60	239	16.06
학사이후과정	180**	12.33	684	45.97
석 사 과 정	30***	2.05	83	5.58
계	1,460	100.0	1,488****	100.0

* 국립중앙도서관 단기강습코스과 사서교육원 준사서과정 포함

** 사서교육원 정사서과정과 사서교사과정 포함

*** 이 통계는 추정치임

**** 英國의 통계는 1974/5학년도 정원임.

코스를 수료한 자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관중이 공공도서관이었음은 이 분야 발전과 관련하여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으며 이는 빠른시기에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세번째, 교육은 가능한 한 교육기관에서 정규적인 과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란 상식에 근거하여 볼 때, 조사된 현직 사서 391명 중 233명이 대학부설 특수과정이나 단기 양성과정출신으로 전체에 대한 비율이 59.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도서관계 초창기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점차적으로 이러한 상황도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나라 전문사서직 발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英國에서의 專門職 司書의 學力水準別 入學定員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11].

이 표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대조하여 보면 표 10과 같이 대비될 수 있는데, 이 비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전문사서직 발전을 위해 최소한 우리나라의 단기과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며,

둘째, 학사이후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1년간 정규과정으로 교육시키되 수료증을 수여하고, 이 학력수준을 정사서자격 획득의 기본 자격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주제전문가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대학과 專門研究 圖書館의 요청에도 부응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과제라고 믿는다[12].

또한 이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司書 職양성 定員이 2년제과정에 43.84%나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영국은 학사이후과정에 45.97%의 비율이어서 대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13]. 이는 우리의 發展을 위한 하나의 좋은 시사가 될 수 있으리라 고 보며, 이러한 정규대학이나 學士以後과정의 교육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사서직의 학력별 수준은 英國과 비교하여 훨씬 낮은 편이며 이에 대한 도서관학교육계와 일선도서관계의 대응책이 요청되는데, 학력수준의 향상을 전제하지 않은 專門司書職의 發展이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란 論理에 [14]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Ⅲ. 長期 需要展望의 前提 要因

1. 전문사서직 受容을 위한 社會的 여건

專門司書職이 長·短期的으로 어느 정도까지 배출되는 것이 적절한 線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사서를 社會에서 얼마나 受容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겠는가를 판별하는 方法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나라 일반사회에서의 司書職에 대한 認識은 어떠한가를 개괄하기로 한다. 우선 近代的 개념의 도서관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부터 專門司書職에 대한 인식이 社會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역사가 20여년 밖에 안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司書職에 대한 반응과 인식의 정도는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단지 인식과정에 있는 형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4차에 걸친 經濟開發5年計劃의 성공적 수행으로 인한 경제의 高度成長과 1977년 말에 성취한 수출 100억불 달성등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전문사서직의 인식에 유리한 立場을 만들어 주었다. 즉 工業化社會以後의 脫工業化社會(Post Industrial Society) 즉 情報化社會(Information Society)로 移行하는 世界的 推移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情報化社會로의 發展 段階에 필수적인 것은 情報專門家인데, 도서관학을 전공한 專門司書가 이 所任을 맡기 시작했고, 이미 專門圖書館 分野에는 상당한 필요성과 함께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輸出 增大를 위한 戰略의 하나로 수출품의 品質 高級化는 당연한 것으로 대두되는 현상인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레벨이든 民間主導이든 技術研究의 發展과 혁신이 뒤따라야 하는 소위 研究開發(Research and Development)의 필요성이 절증하고 있는데, 아 분야에도 專門司書職에 의한 情報지원이 당연함도 인식되어 가고 있다 하겠다.

또한 R&D分野뿐만 아니라 福祉社會로의 지향을 主要 政策課題로 삼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主要 社會教育 및 文化的 제도인 공공도서관의 증가와 발전도 필수불가결의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서의 역할 역시 중요시되어야 함은 자연스러운 논리라 하겠다.

전문사서직 즉 정보전문가에 대한 需要의 증대에 대한 압력은 情報社會의 시민들이 情報媒體를 다루는 도

서관 혹은 정보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받으려하는 점, 그리고 포괄적이며 망라적인 국·내외의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데서도 찾아낼 수 있다[15].

다음으로 고급인력의 대폭적 수요에 따른 高等教育의 확충과 병행되는 大學圖書館의 기능 확대로 인한 전문사서직의 발전이 요망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끝으로 전문사서직의 需要 증대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學校圖書館의 學校司書(School Librarian)의 정상적인 역할 발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분야는 대폭적인 社會的 認識의 확대가 요청되는 것으로서 현재 全國의 學校圖書館은 國民學校, 中高等學校를 합쳐 3,954개관에 이룬다고 집계되어 있으나 교육자료센터(media center)로서의 기능이나, 학교도서관(school library)으로서의 諸機能을 발휘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개나 될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교육법과 도서관법이 강력하게 사서교사(teacher librarian)가 아닌 學校司書(school librarian)를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論議를 요약하면,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職에 대한 現段階의 社會的 인식은 이제 초기단계이지만,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필연적으로 과학과 산업의 연구개발이 뒤 따라야 한다는 경향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 공공, 연구,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점차적으로 정상화 내지는 發展的으로 이행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도서관법 및 관계법규가 개정되거나 새로 입법되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2. 司書職 教育水準과 社會變化에 대한 對應

1970年代의 세계와 그 변화하는 세계속에서의 韓國도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여야 하였으며, 다가오는 80년대에도 그 변화의 속도는 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情況속에서 이제 20여년의 짧은 歷史를 지닌 專門司書職이 어떻게 對應하고 또 發展하여야 할 것인가는 분명히 커다란 문제임에 틀림없다. 전문사서직의 長期需要 전망을 가능하게 할 前提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이 변화하는 사회 즉 급변하는 경제사회, 기술의 혁신,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기존 도서관시스템의 변화를 강하게 자극하며, 또 발전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16] 점이다.

그러므로 다음 몇가지 점에서 전문사서직은 물론 이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융통성있는 發展的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바이다.

첫째, 學問명칭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圖書館學界에

서 數次 논의 된바 있으며, 그 代案도 제시된 바 있었으므로 [17]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려 한다. 다만 진보적인 개념을 암시할 수 있는 학문명칭의 도입과 과감한 受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는 도서관학 교과과정의 發展的 改善이 지극히 요청된다는 점이다[18].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별개의 主題이므로 상론할 필요가 없겠으나 요약하면,

1) 主題專門家(Subject Specialist)를 걸러 낼 수 있는 교과 과정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2) 컴퓨터를 응용한 情報學 分野의 교과과정이 더욱 과감하게 개설되어야 할 것이며 [19],

3) 英語를 비롯한 제2외국어의 해독은 물론 表現 능력의 개발이 현재의 대학교육 수준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들 수 있겠다.

세째는 현행 우리나라 專門司書職의 教育水準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前章에서도 현황을 상세히 分析한바 있고, 英國의 경우와도 비교한바와 같이, 변화 발전하는 社會에서 요청되는 專門職으로서의 司書는 2년제 專門大學 학력 수준이나 그 以下の 수준이 아닌란 점이다. 우리나라가 高度産業國家로 변화하고 있고 점점 더 모든 분야에서의 情報가 신속 정확하게 入手되어 전문사서에 의하여 걸러져서 適時에 컴퓨터 등을 통한 효율적인 배분이 요청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대학 졸업수준의 사서로서도 감당키 어려운 尙況으로 변모해 갈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專門司書職의 水準은 學士以後과정에서 교육시키는 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며, 이런 대응책이 마련되고, 이러한 수준에서 사서가 양성되어야만 급변하는 情報化社會의 主流에서 밀려나지 않고 司書職이 專門職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며 成長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Ⅳ. 司書職 需要의 長期展望

1. 一般人力 需要展望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1991년까지의 고등교육 성장전망율 年率 9.2%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20].

또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고등교육기관의 門戶를 확대하여 1991년까지는 고교졸업자의 大學進學率을 54.8%以上, 就學率은 31.92%水準으로 높여야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21].

특히 우리나라의 人力開發 政策은 重化學工業을 主軸으로 한 高度産業國家를 건설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강철, 조선, 기계, 전자, 석유화학, 비철 금속 등 6大 戰略産業의 開發에 중점을 둔다는 目標을

<표 11> 고등교육 성장 전망

① 학생수

(단위:千명)

연 도	1975	1981	1986	1991	연평균증가율 (%)
인 원	262.0	543.0	753.8	1,075.9	9.2

② 進學率指標

(단위:%)

연 도	1975	1981	1986	1991
高校→大學	33.0	56.96	55.27	54.80

③ 就學率指標

(단위:%)

연 도	1975	1981	1986	1991
고 등 교육	8.4	18.31	29.06	31.92

자료: KEDI, 韓國教育發展의 長期展望과 課題, 1978.

<표 12> 科學技術活動 指標

種 別	연도 단위	1976	1981	1986	1991
		科學技術의 對 GNP 比率	%	0.5	1.5
政府對民間의 投資比	%	70:30	50:50	45:55	40:60
研究員 職*	人	11,834	38,807	84,176	113,128
人口萬人當 研究員數	人	3.3	10.0	20.0	25.0
就業人口萬人 當研究員數	人	9.4	26.0	48.0	55.7

* 2年以上의 연구경력을 가진 大卒以上の 研究員數
 자료: KDI,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1991年. 1977.

세우고 있는 바 [22], 이 分野에는 大規模의 資本需要는 물론 技術技能人力의 需要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켰고, 또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즉 과학기

<표 13> 雇 傭 構 造

(單位:千名)

	1976	1981	1986	1991	年平均增加率 (%)				國際比較*		
					1967~76	1977~81	1977~86	1977~91	美國	日本	西 獨
總 人 口	35,860	38,807	42,088	45,251	2.0	1.6	1.6	1.6	213,137	111,934	61,886
15 歲 以上 人 口	22,416	25,847	29,145	32,154	3.1	2.9	2.7	2.4	155,264	84,747	48,420
總 人 口 對 比 (%)	62.5	66.6	69.2	71.1					72.9	75.7	78.2
25~44 歲 人 口	8,954	10,139	12,123	14,178	2.2	2.5	3.1	3.1	53,542	36,765	16,990
總 人 口 對 比 (%)	25.0	26.1	28.8	31.3					26.1	32.9	27.5
經 濟 活 動 人 口	13,061	15,395	17,878	20,508	3.7	3.3	3.2	3.1	94,793	52,574	26,865
經 濟 活 動 參 加 率 (%)	58.3	59.6	61.3	63.8					61.1	62.0	55.5
就 業 人 口	12,556	14,933	17,520	20,303	4.1	3.5	3.4	3.3	84,783	52,230	25,688**
農 林 水 產 業	5,601	5,484	5,101	4,633	1.4	-0.4	-0.9	-1.3	3,380	6,610	1,822
構 成 比 (%)	44.6	36.7	29.1	22.8					4.0	12.7	7.1
鑛 工 業	2,743	4,166	5,613	6,860	11.6	8.7	7.4	6.3	19,092	13,620	9,797
構 成 比 (%)	21.9	27.9	32.0	33.8					22.5	26.1	38.1
社 會 間 接 資 本 及 其 他	4,212	5,283	6,806	8,810	4.8	4.6	4.9	5.0	62,311	32,000	14,069
構 成 比 (%)	33.5	35.4	38.9	43.4					73.5	61.2	54.8
失 業 人 口	505	462	358	205					7,830	1,000	1,074
失 業 率 (%)	3.9	3.0	2.0	1.0					8.5	1.9	4.7

* 國際比較는 1975年 資料.

** 1974年.

자료: KDI, 長期社會發展, 1977-1991年. 1977. p.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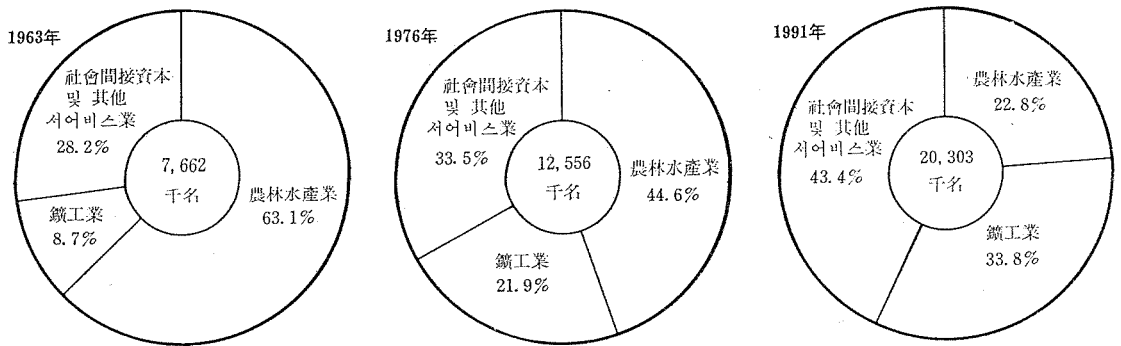
술분야의 人力이 대폭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인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에 投資하는 對 GNP比率은 0.5%에 불과하지만, KDI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의 비율이 표 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1년에는 2.5%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R&D 투자율의 증가와 研究員數의 증가는 專門司書職의 증가와 깊은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司書職의 長期展望에 대하여 밀접한 관

계를 갖는 요인은, 우리나라의 長期 雇傭構造에 관한 것이다. 표 13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총인구 雇傭의 年平均增加率은 1967~76年 사이에는 2.0%에서 1977~1991年 사이에는 1.6%로 감소하여 先進國型이 될 것이고, 반면에 25~44세 사이의 人口 취업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1967~76년에는 2.2%였으나 1977~91년에는 3.1%로 증가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司書職의 需要展望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社會間接資本(SOC) 및 기타 서비스業이 확대되고 發展

〈圖 1〉 産業別 雇傭構造의 推移



〈표 14〉 産 業 別 成 長 率
(1970年 價格)

(단위 : %)

	國民總生産	農林水産業	非 農 林 水 産 業	鎭 工 業		S O C 및 其 他			
				鎭 業	製 造 業	S O C	其 他		
1 9 6 1	4.8	11.9	0.1	3.6	7.8	3.1	1.1	5.3	2.1
1 9 6 2	3.1	-5.8	10.0	14.1	21.3	13.2	8.9	14.6	8.0
1 9 6 3	8.8	8.1	9.3	15.7	3.6	17.3	7.4	16.2	5.9
1 9 6 4	8.6	15.5	3.9	6.9	10.4	6.5	3.0	13.2	1.1
1 9 6 5	6.1	-1.9	12.0	18.7	8.6	20.0	9.9	20.2	7.8
1 9 6 6	12.4	10.8	13.4	15.6	2.5	17.1	12.6	20.4	10.8
1 9 6 7	7.8	-5.0	15.9	21.6	10.1	22.8	13.8	19.2	12.5
1 9 6 8	12.6	2.4	18.0	24.8	0.7	27.0	15.4	31.0	11.2
1 9 6 9	15.0	12.5	16.1	19.9	1.5	21.4	14.6	28.6	10.2
1 9 7 0	7.9	-0.9	11.7	18.2	15.8	18.4	8.9	10.1	8.5
1 9 7 1	9.2	3.3	11.5	16.9	1.3	17.7	8.9	6.7	9.8
1 9 7 2	7.0	1.7	8.9	15.0	—	15.7	5.8	5.9	5.8
1 9 7 3	16.7	5.9	20.2	30.4	18.1	30.9	14.7	24.0	11.3
1 9 7 4	8.7	5.8	9.5	17.0	5.8	17.5	4.9	5.4	4.6
1 9 7 5	8.3	7.1	8.7	12.9	11.0	12.9	5.8	12.2	3.2
1 9 7 6	15.5	8.9	17.3	25.4	2.7	26.1	11.3	14.3	10.0
6 2 — 6 6	7.7	5.1	9.7	14.1	9.1	14.7	8.3	16.9	6.7
6 7 — 7 1	10.5	2.3	14.6	20.3	4.8	21.4	12.3	18.7	10.4
7 2 — 7 6	11.2	5.9	12.8	20.0	7.3	20.4	8.4	12.2	6.9
1 9 7 7	10.3	3.1	12.2	11.2	9.5	11.2	13.0	22.8	8.5
1 9 7 8	10.5	7.0	11.3	12.8	7.0	13.0	10.1	15.0	7.6
1 9 7 9	10.0	4.0	11.4	12.3	5.5	12.5	10.6	15.0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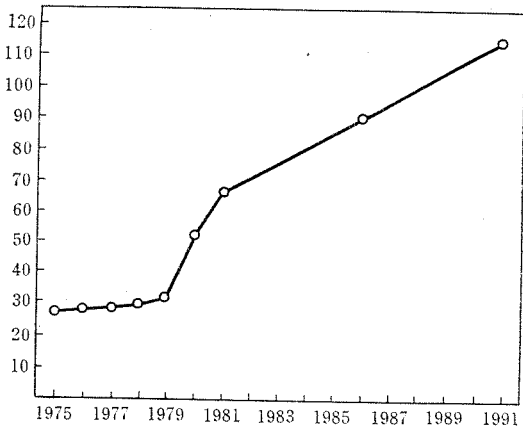
자료 :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8.

되는 推移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圖 1에서 보여 주듯이 産業別 雇傭構造의 變化를 보면 1976년의 SOC 및 기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33.5%였으나 1991년에는 43.4%로 증가될 것이라고 보았다. 전문사서의 進出分野가 情報産業 分野이며 이는 산업분류상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에 속해있음은 상식적인 이론으로 본다면 SOC분야의 대폭적 발전은 전문사서직의 需要와 정비례하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OC 및 기타부분은 1970年 不變價格으로 1976년 11.3%, 1977년 13.0%, 1978년 10.1%, 그리고 1979년에 10.6%로서 앞으로 10%이상 증가할 것이 확실한 것이다[23].

결과적으로 1980년대를 바라보면, 科學技術人力을 中心으로 한 고급인력이 대폭 필요하며 따라서 大學定員을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는 점도 명백해지는데, KEDI는 圖2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1991년의 대학정원은 110

〈圖 2〉 大學生數 增加 (단위 萬)



자료 : KEDI 韓國教育發展의 長期展望과 課題, 1978.

만명線에 이를 것이라고 推計하였다. 즉 1977년에서 1991년까지는 고교졸업자의 54.8%가 전학하여 전체 고 급인력은 大卒水準이 24만8천명에서 79만8천명으로, 專 門大水準이 11만5천명에서 34만6천명으로 증가할 것이 고 대학 대 전문대 출신 비율은 7 : 3이 되어 고등교육 을 받는 총수는 1백11만4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 였다.

2. 專門司書職 需要長期展望

우리나라의 一般人力에 대한 1976~1991년 사이의 長期展望에서 살펴본 指數는 고등교육 연평균 증가율 이 9.2%이며, 과학기술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對 GNP 투자율이 2.5%에 이르며, SOC 및 기타 서비스업부분 의 성장율이 최소한 10%이상이고, SOC부문만 따로대 어 놓았을 경우의 성장율은 1978~79년간에 15%이상 이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 指數에 근거하여 專門司書職을 양성하 기 위한 入學定員의 長期展望과 또 전문사서직이 구체 적으로 年度別 就業하게 될 人員數, 그리고 이러한 전 망에 근거한 專門司書職의 장기 需給展望을 推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1 전문사서직 入學定員의 增員展望

우선 전문사서직의 水準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문 제이다. 이에 대한 現狀分析 결과로는 大卒水準 對 專 門大水準 比가 36% : 64%인데 단계적으로 이를 시정 하여 목표년도인 1991년에는 7 : 3 내지는 6 : 4정도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서직 양성을 위한 대학수준의 정원을 年증가 率 10%로 잡고, 專門大水 準의 정원 증가 年率을 3% 以下로 잡는 것이 적절한 비율이라고 사려된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KEDI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全體 高級人力 需給上 필요한 入學定員이 大學수준을 69%로 추정한 반면, 전문대 수준 정원이 31%정도 필 요할 것이라는 分析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다음 문제는 현재 사서양성을 위한 短期講習에서 量 産되는 準司書배출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조처에 불 과한 것이므로 本 長期展望에서는 이를 제외하기로 하 였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한 우리나라 전문사서직의 입학 정원 증원전망은 표 15와 같다. 즉 1991년의 大學圖書 館學科 入學定員은 1979년의 3.14배인 1,601명이 될 것이며, 專門大學도서관학과 정원은 현재 760명에서 1.4배가 증가한 1,083명이 될 것이므로 사서직의 총 입학정원은 1979년의 1,270명에서 2.1배가 증가한 2,68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 專門司書職의 취업예정자 推移

다음은 사서직의 年度別 졸업예정자 즉 취업예정자 의 推移에 대한 전망을 해 보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졸업자의 전망에 대한 年 增加率은 入學定員의 比率과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우리나라의 雇 傭構造는 專門大 出身의 취업율이 1977년도에 44.2% 로서 [24] 앞으로 고용구조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1991 년에 전체 고급인력의 需要가 大卒人力이 70%를 접하 게 될 것이라는 大前提와, 英國의 경우 大學과 學士以 後の 교육을 받고 배출되는 司書의 比率이 1975년 현 재 67.6%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우리나라의 專門大 水準의 도서관학과 입학정원이 구조적으로 전혀 적당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 진다.

그러므로 전문대 졸업자 증가비율을 年率 2%와 0% 로 각각 하향조정했을 경우로 나누어 취업예정자 推移 를 전망하면 표 16과 같다.

즉 1979~1991년간에 大學卒業者水準의 사서는 총 8,605명이 배출되어, 1946년부터 1978년까지 배출된 사 서 2,883명을 [25] 누계하면 11,488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문대 수준에서 양성된 준사서는 1957년 이후 1978년까지 2,954명이 양성되었고, 이에 1979~1991년 간에 배출될(年率 2%로 잡았을 경우) 10,367명을 합 치면 13,321명에 이를 것이다.

2.3 專門司書職의 就業展望

전문사서직 취업전망에 앞서 1967년부터 1977년까지 10년간의 [26] 전문사서직의 정·준사서별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문사서직의 증가율은 年平均 4.5%였 음이 밝혀졌다. 단지 이 자료가 전국도서관에 취업하 고 있는 전직원을 정사서(大卒), 준사서(專門大卒)로 구별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라, 1978년 10월 현재 전국

<표 15> 전문사서직 입학정원의 증원 장기전망

교육수준	연도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비 고
대학 전문대	1	510	561	617	679	747	821	903	994	1,093	1,203	1,323	1,455	1,601	年率 10% " 3%
	2	760	782	806	830	855	881	907	935	963	992	1,021	1,052	1,083	
계		1,270	1,343	1,423	1,509	1,602	1,702	1,810	1,929	2,056	2,195	2,344	2,507	2,684	

<표 16> 전문사서직의 연도별 졸업예정자推移

교육수준	연도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대학	1	420	420	420	420	510	561	617	679	747	821	903	994	1,093	8,605
	2	560	560	760	775	790	807	823	839	856	873	890	908	926	
전문대	1	560	5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9,480
	2	980	980	1,189	1,195	1,300	1,368	1,440	1,518	1,603	1,694	1,793	1,902	2,019	
계	1	980	980	1,180	1,180	1,270	1,321	1,377	1,439	1,507	1,581	1,663	1,754	1,853	18,085
	2	980	980	1,180	1,180	1,270	1,321	1,377	1,439	1,507	1,581	1,663	1,754	1,853	

註) 1 年率 2%增加로 계산하였을 경우
2 年率 0%로 계산하였을 경우

<표 17> 전문사서직의 연도별 취업자 현황(1967~1977)

자격별	연도별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7	연평균증가율	비 고
대학(정사서)	1	1,437	1,554	1,540	1,477	1,608	1,651	1,717	1,635	2,054	2,135	4.50%	
	2	1,258	1,360	1,347	1,322	1,406	1,460	1,503	1,430	1,797	1,869		
전문대(준사서)	1	2,695	2,914	2,887	2,769	3,014	3,111	3,220	3,065	3,851	4,004	4.50%	
	2	2,695	2,914	2,887	2,769	3,014	3,111	3,220	3,065	3,851	4,004		

자료 : KLA, 한국도서관통계. 1977. 서울, KLA, 1977.

<표 18> 전문사서직 취업예정推移(1979~1991)

교육수준	연도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年率
대학	1	2,135	2,263	2,399	2,543	2,695	2,857	3,023	3,210	3,403	3,607	3,823	4,053	4,296	4,554	4,823	6%
	2	1,869	1,981	2,100	2,226	2,360	2,501	2,651	2,810	2,979	3,158	3,347	3,548	3,761	3,986	4,226	
계	1	4,004	4,044	4,499	4,769	5,055	5,358	5,674	6,020	6,382	6,765	7,170	7,601	8,057	8,540	9,049	6%
	2	4,004	4,044	4,499	4,769	5,055	5,358	5,674	6,020	6,382	6,765	7,170	7,601	8,057	8,540	9,049	

의 관종별 주요도서관 20개관을 표본조사한 것에 의거했음을 밝힌다. 즉 이 20개기관의 직원들을 학력별 자격증 소지별로 통계를 내본 결과치의 비율을 30년간 그대로 적용하여 작성한 자료인 것이다.

이 분석에 의하면 정사서(대학교육수준)와 준사서(전문대학 교육수준) 그리고 자격증 비소지자의 構成比는 32% : 28% : 40%로 분석되었으며[27] 이 구성비를 근거한 1967년부터 1977년간의 전문사서직 교육수준별 취업자에 대한 현황분석은 표 17과 같다.

이 分析결과 전문사서직의 現 평균 취업 증가율은 4.5%였다. 그러나 長期展望을 위한 前提 要因에서도 밝혔듯이 司書職은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비스業 分野에 속한 情報社會의 主體的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앞으로의 고용 擴大는 必至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난 10년간의 現 평균 취업율 4.5%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망에서는 年증

가율은 6%로 2.5% 상향조정하여 취업예상을 推計하였다. 이를 근거하였을 경우 전망되는 전문사서직의 예상 취업전망은 표 18과 같다. 즉 199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게 될 정사서는 총 4,823명에 이를 전망이다.

2.4 專門司書職의 需給展望

전문사서직 입학정원의 증가 전망과, 취업전망을 토대로 하여 이제는 종합적으로 1991년까지의 전문사서직의 需要 供給전망과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즉 전문사서직의 수급전망에서 보여주는 문제점을 제시하므로써 우리나라 전문사서직 수요의 장기전망에 대한 논의를 끝맺고자 한다.

우선 需要部門에서 대학출신이상의 정사서와 전문대출신이하의 준사서의 경우 장래에는 그 취업상황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졸출신과 전문대출신의 취업율은 전자가 61.0%였으며, 후자는 44.2%, 그것

<표 19> 전국 전문학교와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實業(高等)專門學校 (Vocational) College						大 學 College & University					
	卒業者	就業者	進學者	入隊者	其 他	就業率	卒業者	就業者	進學者	入隊者	其 他	就業率
1 9 6 3	—	—	—	—	—	—	—	—	—	—	—	—
1 9 6 4	—	—	—	—	—	—	32,824	13,050	1,355	5,543	12,876	35.6
1 9 6 5	461	216	39	55	151	46.9	36,180	12,916	1,036	5,762	16,466	35.7
1 9 6 6	265	165	77	—	23	62.3	22,166	10,084	1,070	3,754	7,258	45.5
1 9 6 7	681	398	195	71	17	58.4	22,338	10,123	990	3,970	7,255	45.3
1 9 6 8	1,552	1,019	163	174	196	65.7	26,974	13,938	1,169	2,365	9,502	51.7
1 9 6 9	2,026	1,299	195	169	363	64.1	22,684	12,659	851	2,771	6,403	55.8
1 9 7 0	2,909	1,951	294	305	359	67.1	23,515	13,743	1,091	2,961	5,720	58.4
1 9 7 1	3,635	2,068	756	328	483	56.9	27,168	14,448	1,401	4,181	7,138	53.2
1 9 7 2	4,672	2,154	896	439	11,803	46.1	29,544	15,078	1,684	3,827	8,955	51.0
1 9 7 3	6,342	2,720	1,442	845	1,335	42.9	28,775	16,139	1,602	4,642	6,392	56.1
1 9 7 4	8,596	4,145	640	1,042	2,769	48.2	30,153	17,227	2,024	4,378	6,524	57.1
1 9 7 5	12,323	5,555	822	1,987	3,959	45.1	33,610	19,635	2,179	4,076	7,720	58.4
1 9 7 6	17,544	7,990	578	3,074	5,902	45.5	34,725	21,299	—	4,454	—	61.3
1 9 7 7	21,497	9,504	1,850	3,724	6,419	44.2	37,374	22,807	2,620	4,516	7,431	61.0

자료 :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8.

<표 20> 專門司書職의 需給展望(1979~1991)

(대학도서관학과 출신 사서의 취업율을 70%로 책정하여 展望)

	需要對 卒業者 對比			需要對 期望취업자 對比			비 고
	예 상 수 요 (1979~91)	공급(졸업자) (1979~91)	需要對供給對比 (%)	수 요 (1979~91)	期望취업자 (예상공급)	對 比(%)	
대 학	6,860*	8,605	79.7	6,860	6,024**	113.8	공급부족
전 문 대	2,245	10,367	21.7	2,245	3,110***	72.2	공급과잉
		9,480	23.7		2,844****	78.9	공급과잉
계	9,10	18,972	48.0	9,105	9,134	99.7	수급균형
		18,085	50.3		8,868	102.7	공급부족

註 : * 1991년까지의 취업예상자 4,823명중 1978년까지의 취업자 2,263명을 제외하면 2,560명임. 이 수자에 전국의 학교도서관을 정상화할 경우의 약 4,200명의 사서교사와 도서관학과 의 증가와 입학정원의 증원으로 인한 교수요원의 수요를 예상하여 4,000명의 예상수요자를 합한 것임.

** 8,605명×70%=6,024명

*** 10,367명×30%=3,110명

**** 9,480명×30%=2,844명

1) 졸업예정자 증가 年率 2%의 경우

2) 졸업예정자 증가 年率 0%의 경우

도 공업 기술계 출신을 주축으로 한 경우인 것이다. 특히 도서관학과 의 경우 대학출신과 전문대수준의 취업율은 정확히 조사된 통계가 현재로선 없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指數보다 그 격차는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28].

이러한 문제점은 표 20에서 종합분석된 전문사서직 수요 공급전망에서 한층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음을 본다. 즉 대학교육 수준 이상의 전문 사서직의 취업율은 현재 70%정도로 예상하여 수급율을 추정하였지만 실제 의 취업율은 더욱 높은 상황임이 분명하므로 [29], 표

20에서 보여 주듯이 1991년에는 공급부족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학사이후 과정의 증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반면에 전문대 수준인 준사서의 취업율을 30%로 가정해도 서서히 供給과잉현상 즉 졸업자가 수요를 훨씬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한다면 가능한 전문대학 도서관학과 의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말고 현상유지하거나 최대한 2%이하로 증가율을 억제하여야 할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

또한 전문대 도서관학과와 입학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지역적 안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전망은 英國의 소위 Jessup Report[30]의 司書人力調查結果 發表와는 다른 기초적인 分析에 불과하지만, 文教當局이나 圖書館學界, 그리고 圖書館界의 綜合的 政策수립을 위한 하나의 기초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引用 文 獻>

1. 先發開途國(Advanced Developing Countries)中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6국을 Economist誌가 1978년 6월 10일자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기 시작한 이래 1978년 6월 OECD자료이사회에서 NIC란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2. 江南社會福祉學校에 1979년 3월부터 모집하는 4년제 도서관학과(모집정원 40명)는 정규대학이 아닌 各種學校이므로 이 통계에서는 제외하였음.
3. 釜山의 韓星女子初級大學 圖書館學科는 1979학년도부터 釜山産業大學으로 승격되면서 同學科가 폐과되었으므로 이 통계에서는 제외되었음.
4.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경북대학교 대학원 "
5.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과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대학원 司書教育專攻이 그것인데, 연대의 경우는 1977년 9월부터 학생모집을 중지하고 있다.
6. 성균관대학교 사서교육원은 정사서과정 120명과 사서교사과정 60명을 모집하는데, 사서교사는 실질적으로 정사서과정과 같은 범주이므로 정사서 모집정원에 포함시켰다.
7. 이 통계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제외하였음.
8. 韓國教育開發院. 韓國教育發展의 長期展望과 課題, 서울, 同院, 1978. 四大廣域 高等教育圈은 서울권(서울, 경기, 강원); 충청권(충남북); 전라권(전남북); 경상권(부산, 경남북) 임.
9. 20개 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대학도서관: 경북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문도서관: 국제경제연구원(KIEI),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한국은행(BOK), 한국표준연구원(K·SRI)
공공도서관: 남산시립, 대구시립, 동대문시립, 부산시립, 정독, 종로시립.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10.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는 150

명으로 이는 전체 준사서의 70.1%나 차지한다.

11. Saunders, W. L. ed., *British Librarianship Today*. London, L.A., 1976. p. 348.
12. 한상완, 대학도서관 참고 정보업무에 있어서 주제전문가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76.
13. 이 비교가 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 2월 현재이며, 英國은 1974/5년도 통계란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14. 한상완, 專門司書職의 發展論; 大學 및 研究圖書館의 側面에서, 도서관, 제29권 제5호(1974. 5), pp. 13—22.
15. Herbert Schur, *Education and Training of Information Specialists for the 1970's*. Paris, OECD, 1973. p. 9.
16. *Ibid.*
17. 이재철, "문헌과학과 문헌사의 소임; 「도서관학」의 학명과 「사서」의 지명 개칭을 바란다." 도서관, Vol. 26. No. 6 (1971. 5), p. 3; 정필모, "圖書館名稱의 變遷에 대하여," 圖書館學, 제2집(1971), pp. 63—78; 한상완, "專門司書職의 發展論,"...等.
18. 이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겠다. Rowena Weiss Swanson, "Educ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s a Profe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29 No. 3, 1978. pp. 148—155.
19. Schur, *Education*. pp. 46—49.
20. 한국개발연구원,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91年. 서울, 同院, 1978.
21. 한국교육개발원. 韓國教育發展...
22. 維新政友會, 綜合人力需給政策의 方向, 서울, 同會, 1978.
23.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서울, 同院, 1978. p. 6.
24. *Ibid.* p. 349.
25. Jai Chul Lee, "Survey of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 人文科學, 第16輯(166). p. 73—82; 國立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史, 서울, 同圖書館, 1973; 崔達鉉, "專門職司書養成政策에 관한 考察, 國會圖書館報 Vol. 15, No. 9(1978, 11. 12), pp. 59—66. 등을 참고하여 집계한 것임.
26. 이 통계에서 1976년분의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제외하였음.
27. 여기에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구성비 분석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18개 도서관의 분석결과이다. 관중별 전체직원의 사서자격증 소지 비율은 <표 6>을 참조.
28. 필자가 표본조사한 20개도서관의 학력별 조사에서 준사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28%에 불과하였다.
29.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도서관학과 출신 취업율은 최근 수년동안 100%에 가까웠음.
30.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Library Advisory Councils of England and Wales, *Report on the Supply and Training of Librarians*. London, HMSO, 1968.